

## 하브루타 토론 활동이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신 원 애\*, 정 옥 경\*\*

---

### 《요 약》

---

본 연구는 하브루타 토론 활동이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보육교사 51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고, 실험집단에 하브루타 토론 활동을 주 1회 10주간 실시하였다. 실험 전과 후에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력 검사를 실시하여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력 수준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하브루타 토론 활동이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며, 보육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

**주제어:** 하브루타 토론 활동(Havruta discussion activities)  
보육교사(child care teachers)  
비판적 사고 성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문제해결력(problem solving ability)

---

※ 논문접수 2020. 02. 29. / 수정본접수 2020. 03. 15. / 게재승인 2020. 03. 26.

\*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교수

\*\* 충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 교신저자, okkyung.jung1@gmail.com

## I. 서론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일이다(김은설, 황미영, 2011). 교사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는데 초점을 두는 직전교육이 수 년 안에 끝나는데 비해 보육현장에 투입된 이후 보육교직원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수십 년간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환경에 적합한 현직교육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직과 비교할 때 보육교사직은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자율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박지희, 조형숙, 염지숙, 2014). 보육교사는 미리 주어진 교과서나 일정한 시간표를 따르지 않고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교육을 계획하는 일부터 교육내용 조직하고 교수학습방법, 교수매체, 교육자료를 선택하여 실행하기까지 교육활동 전반에 큰 자율성을 행사한다(김진미, 2017; 양현선, 2006).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에 필연 수반되는 것은 보육교사 자신의 교육적 판단에 대한 비판적 사고이다. 비판적 사고는 무엇을 믿고 행동할지 결정하기 위해 언어적 표현과 행위의 논리적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 증거, 준거, 방법, 맥락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이다(김광수, 김명숙, 박정, 2001; Ennis, 1985). 보육교사는 다양한 철학의 교육이론과 자신의 교육신념 및 경험을 종합하고 재구성하여 지역사회와 유아교육기관의 철학 및 개별 영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결정과 교수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문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성향이 필요하다(한민경, 2009).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될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보육교사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된다. 2017년 12월 교육부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여 현행 누리과정을 유아, 놀이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교사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교사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교수계획과 행위가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는 비판적 사고력에 기반을 둔 전문성 향상이 요구된다. 비판적 사고력은 인지적 측면인 비판적 사고 기술(thinking skill)과 정의적 측면인 비판적 사고 성향(thinking disposition)으로 구성된다(Ennis, 1996; Facione, 1990). 비판적 사고이론에 의하면, 비판적 사고 성향은 비판적 사고를 시작하게 하는 동기적 측면이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지 않다면 그 기술이 발휘되기 어렵다(노수남, 2009; 박중길, 2007; 한민경, 2009). 따라서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비판적 사고 성향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증진에 필요한 또 다른 요인은 교육현장에서의 문제해결력이다. 문제해결력이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인지, 정서, 행동과정이다(D'Zurilla & Nezu, 1990). 보육교사직은 등하원지도와 차량 동승, 식사지도, 행사준비, 학부모와의 잦은 상담, 시설관리, 교실청소 등 다른 학교 급에 비해 직무의 범위가 넓다(곽윤숙, 2013; 김성수, 이희경, 2007). 게다가 교육현장은 불확실성, 불안정성, 특수성, 가치갈등을 특징으로 하며(Schön, 1983), 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들이 예측된 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역동적이며 복잡한 상황이다(서경혜, 2005). 보육업무의 특성상 수업시간과 휴게 시간을 구분할 수 없는 연속적인 하루일과와 호기심이 많고 활동성이 높은 영유아의 특성으로 인해 보육교사는 예상하지 못했던 갖가지 문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당면한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여 기민하게 대처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문제해결력은 보육현장에서의 교사역할수행 및 교사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사들의 문제해결력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과정 설계, 일과계획 및 수행, 상담, 평가, 행정업무 등의 교사역할수행 수준이 높았고, 교사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현아, 허수윤, 2016). 반면 보육교사가 보육현장에서의 문제해결력이 부족할 경우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며 보육기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주관적 안녕감이나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사녀, 2012; 이승희, 2012). 그리고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김병찬, 이정미, 2010), 보육교사의 문제해결력이 원활한 보육업무 수행을 위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력에는 여러 사람의 다양한 입장이나 상황 맥락을 고려하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고 해결방안을 위해 합당한 근거를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능력이 필요하다. 즉 문제해결의 과정은 비판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김명숙, 2002; 서경혜, 2005). 그러므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직교육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업 혁신을 위한 교육방법의 일환으로 국내에 소개된 이후 유아교육기관과 여러 학교급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유대인의 학습방법인 하브루타(havruta)는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하브루타(havruta)라는 단어는 ‘함께 공부하는 동료’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이 탈무드와 같은 고전적인 텍스트를 연구하는데 사용해온 오랜 역사를 가진 학습방법이다(정옥경, 2016). 하브루타는 한 가지 정답을 요구하는 결과지향적인 방식이 아닌 과정중심적인 학습방법으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을 추구한다. 하브루타 학습이 이루어지는 기본 구조는 두 명의 하브루타 파트너와 텍스트이다. 두 명의 하브루타 파트너는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 일대일로 상호작용하는데, 모든 사람은 기질, 신념, 가치관, 인생의 경험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텍스트를 읽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브루타를 하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른 생각, 의견, 해석을 마주하게 되고, 그에 도전하며 설명하는 논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특성에 대해 Bergom, Wright, Brown와 Brooks(2011)는 하브루타가 모순되는 가정과 증거를 포함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 책임감, 경청능력, 창의성, 상상력, 독립심 등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하브루타의 또 다른 특징은 하브루타 파트너들 간의 상호의존성이다. 두 명의 하브루타 파트너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며, 자신의 학습성취만 아니라 상대방의 학습성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하브루타 과정에서 두 명의 파트너는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지지하거나 그에 도전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이 타당한 근거에 준하여 더욱 예리하고 정교하게 발전되어 나가도록 돕는다. 즉 하브루타는 침묵하게 대립되는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만 결과적으로 공동의 해석을 추구하는 상호의존적인 학습방법이다. 이 점에서 하브루타는 상반되는 의견 대립을 통해 토론의 승패를 가르는 기존의 토론 방식과 차이가 있다.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하브루타 토론 활동의 적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위해 딜레마 상황에 대한 짝토론을 실시한 연구(이은영, 2016)와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해 문제중심학습(PBL: problem-based learning)이나 협동학습을 적용한 연구(강문숙, 김두규, 박수홍, 2012; 김성재, 황지애, 2016; 김세곤, 우경애, 2018; 남미경, 윤갑정, 2014; 홍지명, 2018)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딜레마 상황에 대한 짝토론을 실시한 연구는 짝토론이 하브루타 토론방식에 근거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 토론 사례를 살펴보면 하브루타 학습방법의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예로 딜레마 상황에 대한 주제로서 질문만 있고 하브루타 학습의 기본 구조 중 하나인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으며, 짝토론 사례에서 논박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토론의 모습 외에 하브루타 상호작용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대립되는 의견의 전개 과정 외에 협력적으로 공동의 결론을 맺는 하브루타 토론의 특성을 볼 수가 없다.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해 문제중심학습이나 협동학습을 적용한 연구의 경우, 문제중심학습과 협동학습은 공통적으로 소그룹이 협력적으로 논의하여 문제 또는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방식은 협력하여 함께 해결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하브루타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지만, 문제나 과제의 ‘해결’을 위

한 목적지향적인 교육방법으로서 학습과정 자체를 추구하는 하브루타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Blumenfeld, 2011). 그리고 문제중심학습과 협동학습은 교수자가 문제나 해결과제를 선정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는데 반해 하브루타는 질문이 학습자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하브루타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 및 문제해결력 향상(고현, 민형덕, 송준석, 2017)과 예비유아특수교사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및 협력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효과(권미은, 2019)를 알아본 선행연구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질문 중심의 하브루타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내용-심화-적용-종합질문 등 교수자가 체계화된 질문 유형을 제시하고 그 유형에 따라 질문을 만들고 토론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질문이 생성되는 동력은 학습자의 주체적인 문제의식에서 시작되며, 학습자의 인지구조와 관심, 흥미 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김보경, 2016; 양미경, 2002에서 재인용) 미리 구조화된 질문 유형에 따라가야 할 경우 학습자가 자유롭게 사고하는데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진정한 학습자 중심 교육이 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예비유아교사 대상의 선행연구는 현장 경험의 필요성 때문에 실제와 유사한 가상의 상황에 대해 토론하였으나, 본 연구는 보육교사 대상의 현직교육을 실시하기에 하브루타 토론 활동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보육정책을 토론의 주제로 삼고자 한다. 보육정책은 국가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대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보육교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보육현장의 변화를 이끌기도 하며 보육교사의 직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오채선, 2011). 이에 보육정책은 보육교사에게 민감한 주제일 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통해 폭넓은 맥락에서 분석하고 합당한 근거에 입각하여 문제해결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하브루타 학습방법의 주요 특성을 적용하여 보육정책 주제의 하브루타 토론 활동을 실시하고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력에 기여하는 현직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하브루타 토론 활동은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 증진에 효과가 있는가?
- 둘째, 하브루타 토론 활동은 보육교사의 문제해결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교육대학원에서 제공하는 현직교육에 참여했던 보육교사 51명이다. 실험을 위하여 경기도 소재 S교육대학원에서 유아논리논술 수업을 수강하는 보육교사 26명과 서울시 소재 C교육대학원에서 유아언어교육세미나 수업을 수강하는 보육교사 25명을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두 집단의 동질성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력에 대한 사전 검사 결과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간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력의 평균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두 집단이 동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1> 동질성 확보를 위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결과

종속변수	실험집단( $N=26$ )		통제집단( $N=25$ )		$t$	$p$
	$M$	$SD$	$M$	$SD$		
비판적 사고 성향	3.42	.31	3.36	.31	.614	.542
문제해결력	4.73	.57	4.63	.59	.646	.521

### 2. 연구도구

#### 1) 비판적 사고 성향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평가하기 위해 윤진(2004)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도구는 지적 열정 및 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 등 7개의 하위요인과 27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이다. 하위요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지적 열정 및 호기심’은 배움을 열망하고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질문하고 열정적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성향이며, ‘신중성’은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끈기 있게 정확한 결과를 추구하는 성향이다. ‘자신감’은 자신의 사고 과정과 추론 능력에 자신을 갖는 성향이며, ‘체계성’은 조직적이고 순차적으로 탐구하고, 논의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성향이다. ‘지적 공정성’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실제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주장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정과 신념에 반대되는 결과일지라도 진실을 인정하는 성향이다. ‘건전한 회의성’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며 자신과 타인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성향이며, ‘객관성’은

감정적, 주관적 요소가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성향이다. 본 척도의 내적 일관성에 따른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하위요인은 .710~.776, 전체 .753으로 나타났다.

## 2) 문제해결력

보육교사의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해 Heppner와 Peterson(1982)이 개발한 문제해결검사(Problem Solving Inventory: PSI)를 박현주, 이동귀, 임현우(2004)가 '한국판 문제해결질문지'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PSI는 개인의 실제 문제해결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대처방식을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형태의 척도이다. PSI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된 후 판별타당도, 준거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Heppner & Peterson, 1982), 국내 연구(이희경, 2008; 주홍석, 2010)에서는 총점 및 하위요인의 내적 일관성에 따른 신뢰도가 .7~.9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검사도구는 문제해결 자신감, 접근-회피 양식, 개인의 통제력 등 세 개의 하위요인과 32문항으로 구성된 6점 리커트 척도이다. 하위요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문제해결 자신감'은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확신이며, '접근-회피 양식'은 다양한 문제해결활동에서 일반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지 회피하는지 보여주는 경향성이다. 그리고 '개인의 통제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

원척도는 검사결과 피검사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지만(1=전적으로 동의, 6=전혀 동의하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척도를 재구성하여(1=전혀 동의하지 않음, 6=전적으로 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문제해결력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척도의 내적 일관성에 따른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하위요인은 .790~.868, 전체 .889로 나타났다.

## 3. 실험절차

### 1) 사전검사 및 하브루타 실습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2016년 9월 8일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과 9월 15일, 2회에 걸쳐 실험집단에 하브루타 토론을 실습하였다. 1회기에는 강의를 통해 하브루타의 이론적 배경과 토론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였고, 보육교사들 간에 자유롭게 일대일로 하브루타 파트너를 정하였다. 2회기에는 탈무드를 하브루타 토론의 텍스트로 사용하여 하브루타 파트너와 일대일로 하브루타 상호작용 방법을 실습하였다.

## 2) 하브루타 적용

하브루타 토론 활동은 2016년 9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주간 실시되었다. 토론 활동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30분 동안 실시되었다. 수업시간 중 30분의 토론시간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기에 토론 주제마다 2~3차시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에 하브루타 토론 활동은 총 4회기로 네 개의 토론 주제가 10차시 동안 진행되었다.

### (1) 하브루타 주제

본 연구는 보육정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하브루타 토론의 주제로 선정하되, 뉴스 기사를 하브루타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뉴스기사는 사실을 기술한 글로서 내용상 객관적으로 기술된다. 그리고 공문서와 같이 보육정책의 내용만을 서술하는데 제한되지 않고 보육정책의 쟁점과 관련한 학부모, 기관장, 교사, 영유아, 정책기관 등 여러 주체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육정책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뉴스 기사를 하브루타 토론 활동의 텍스트로 사용할 경우 보육교사로 하여금 객관적인 사실 취득 뿐 아니라 관련 주체들의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육정책 주요 쟁점 관련 기사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어린이집’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뉴스 기사를 검색하였고, 검색결과 ‘맞춤형 보육’,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어린이집 안전사고’, ‘유보통합’이 주요 쟁점으로 나타나 이들을 하브루타 토론 활동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 간의 협의를 거쳐 동일한 주제를 다룬 여러 기사들 중에서도 객관적이며 상세하게 기술된 기사를 선정하였다. 회기별로 진행된 하브루타 토론 활동의 주제는 표 2와 같다.

<표 2> 회기별 하브루타 토론 주제

회기	차시	하브루타 토론 주제(관련 기사 내용 및 링크)
1회기	1-3차시	맞춤형 보육(경상일보, 2016. 08. 29) '누구를 위한 맞춤형 보육인가?'
		<a href="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405">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405</a>
2회기	4-6차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매일경제, 2016. 09. 16) '당신 자녀는 안전합니까...어린이집 CCTV 의무화 1년'
		<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amp;no=653137">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amp;no=653137</a>
3회기	7-8차시	어린이집 안전사고(코리아뉴스, 2016. 09. 25) '어린이집서 사망한 아이 5년간 55명.. 사인 1위는 “원인미상”'
		<a href="http://news1.kr/articles/?2783260">http://news1.kr/articles/?2783260</a>
4회기	9-10차시	유보통합(경기일보, 2016. 08. 31) '세부내용 없는 '유보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사 혼란'
		<a href="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mp;act=articleView&amp;idxno=1231080">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mp;act=articleView&amp;idxno=1231080</a>



## (2) 하브루타 단계

본 연구는 Holzer와 Kent(2013), Kent(2006, 2008), 헤츠키 아리엘리와 김진자(2014)의 연구에서 제시된 하브루타 학습단계를 토대로 하브루타 토론 활동의 네 단계를 도출하였다. 네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기사를 읽으며 질문을 만드는 단계이다. 기사를 읽을 때 두 명의 하브루타 파트너가 함께 읽기, 한 문단씩 번갈아 가면서 읽기, 기사 일부나 전체를 반복해서 읽기 등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결정하되 소리 내어 읽는다. 하브루타 토론에서는 텍스트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주장하며 다른 두 명의 파트너에게 도전하거나 지지하는 생명력 있는 존재로 여긴다(정옥경, 2016; Kent, 2008). 따라서 기사를 소리 내어 읽는 것은 텍스트가 말하는 바를 주의 깊게 듣기 위한 행위이다. 보육교사들은 기사를 읽으며 각자 떠오르는 질문들을 모두 적어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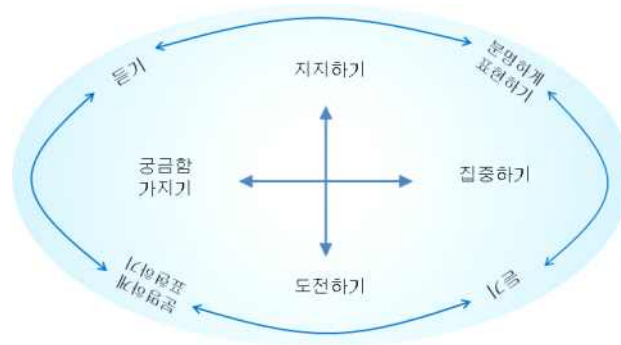
2단계는 질문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기사를 읽으며 떠올랐던 질문들 중 하브루타 토론의 주제로 삼고 싶은 질문을 한 가지 정한다.

3단계는 하브루타 토론하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Kent(2008)가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를 질적 분석하여 도출한 하브루타 상호작용의 핵심적인 요소가 적용된다. 하브루타 상호작용 요소는 ‘듣기(listening)’, ‘분명하게 표현하기(articulating)’, ‘궁금함 가지기(wondering)’, ‘집중하기(focusing)’, ‘지지하기(supporting)’, ‘도전하기(challenging)’이다. 각 요소의 개념을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브루타 토론에서 듣기는 하브루타 파트너인 동료와 텍스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행위이다. 동료의 말을 듣기 위하여 집중하고 침묵하며, 또 다른 파트너인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읽는다. 둘째, 분명하게 표현하기는 생각의 흐름을 차례대로 언어화하여 표현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말하거나 적극적인 경청자로서 동료가 말한 내용을 반복하여 말할 때 사용된다. 셋째, 궁금함 가지기는 어떤 결론에 이르기를 추구하는 반면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거나 텍스트의 의미와 동료의 해석에 대해 끊임없이 호기심이나 회의심을 가지는 태도이다. 넷째, 집중하기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는 반면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주제에 집중하는 태도이다. 다섯째, 지지하기는 동료가 텍스트를 탐구하려는 노력을 격려하여 더욱 명료하면서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이다. 여섯째, 도전하기는 동료가 다시 생각해볼도록 질문하고, 논쟁에서 부적합한 생각을 지적하고, 대안적인 해석을 제안하는 행위이다.

하브루타 상호작용의 여섯 가지 핵심요소는 토론 활동에서 그림 1과 같이 역동적으로 나타난다. 즉 파트너가 하는 말과 텍스트의 내용을 집중해서 듣는 반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한다(듣기와 분명하게 표현하기).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집중한다(궁금함 가지기와 집중하기). 그리고 파트

너가 텍스트를 탐구하려는 노력을 지지하고 격려하되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이를 지적하거나 대안적인 해석을 제시한다(지지하기와 도전하기).



[그림 1] 하브루타 토론 실재(Kent, 2008, p. 75.)

마지막으로 4단계는 해석의 결론을 맺는 단계이다. 이상의 세 단계를 걸쳐 두 명의 하브루타 동료가 함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 결과로, 합의를 통해 결론을 맺으며 하브루타 토론을 마친다.

### (3) 하브루타 토론 활동의 사례

다음에 제시된 표 3은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하브루타 토론 활동의 사례이다.

<표 3>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하브루타 사례

하브루타 단계	내용
	(A교사의 질문)
	- 어린이집 CCTV설치를 왜 의무화 했을까?
	- 영상 보관이 최소 60일이 적당한 기간일까?
1단계: 기사 읽으며 질문 만들기	- 교사의 인권문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CCTV설치에 학대 예방 효과가 있을까?
	- CCTV도입 후 부작용은 무엇일까?
	- CCTV설치 의무화 이후에도 어린이집 학대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문제에서 더 높은 단계로 나가려면 보육교사 현재의 고통은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 보육교사 인성교육을 더 강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B교사의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 설치 의무화가 학대 예방 효과가 있었을까?</li> <li>- 보육교사들은 왜 CCTV에 거부감을 보일까?</li> <li>- 관련 동영상이 무차별하게 나돌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li> <li>- 예전에는 부모와 교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정말 있었을까?</li> <li>- CCTV 영상 열람을 더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li> <li>- 교육을 통해 교사의 충분한 자질과 전문지식이 갖추어질까?</li> <li>- 보육교사 인성교육을 더 강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li> </ul>
2단계:	
질문	보육교사 인성교육을 더 강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선정하기	
	<p>A교사: 저는 보육교사 인성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보수교육을 받으면 느끼고 배우는게 많거든요. 갔다 오면 아이들도 달라 보이고 교사도 달라 보이고 그러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주기적인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때요? (분명하게 표현하기)</p> <p>B교사: 주기적인 교육... 그러면 교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지지하기)</p> <p>A교사: 그리고 보육교사 인성에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을 때 이전에 인성교육 과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분명하게 표현하기)</p> <p>B교사: 아... 보육교사 인성지도 관련된. (듣기) 근데 인성을 볼 수 있다는 게 아이들하고 생활하다가 최악의 경우가 생겨 봐야지 그 사람 인성이 나오더라구요. 수업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 사람 인성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전하기)</p> <p>3단계:</p> <p>하브루타 토론하기</p> <p>A교사: 그렇기는 한데 (지지하기)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 교수나 선생님이 경험담을 많이 이야기해주잖아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으며 우리가 우리 모습을 거울삼아 보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변해가지 않을까요? (도전하기)</p> <p>B교사: 나는 인성교육을 갔다 오는 것도 좋고, 좋은데 좀 더 실천하려고 한다면 처벌이 훨씬 더 강화되면 더 조심하지 않을까요? (도전하기)</p> <p>A교사: 또 뭐가 있을까요? (궁금함 가지기)</p> <p>B교사: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함께 시설에서 서로 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사들을 만나면 좋은 것 같아요. (분명하게 표현하기) ...중략...</p> <p>B교사: CCTV를 설치하면서 인성이 안좋았던 교사도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인성이 좋은 교사의 모습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있지요? 설치만으로 인성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표현하기)</p> <p>A교사: 그런데 이게 사람이 무더져요. “경찰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교</p>

사들이 많이 조심하다가도 무뎌져서 인식을 안하게 돼요. (도전하기)  
그래서 교사들이 CCTV를 자기 스스로 한번씩 보게 하는 것도 방법  
일 것 같아요. ‘내가 했던 행동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며 반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하게  
표현하기) ...생략...

- 대안 1: 주기적인 보수교육 받기  
대안 2: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인성교육 과목 이수하기  
대안 3: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대안 4: 시설장과 교사들이 서로 좋은 인성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이끌어주기  
4단계: 대안 5: 보육교사들이 스스로 CCTV 보고 반성하기  
결론 맺기 대안 6: 시설장이 CCTV를 보고 학대하는 교사 발견하면 개별 상담하되, 3회  
이상 반복되면 권고사직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기  
결론: 인성교육 보다는, 교사의 일과가 많지만 주 1회 정도 자신의 학급  
CCTV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여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 제  
공하기

### 3) 사후검사

2016년 12월 15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력에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2.0을 사용하였다. 연구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알  
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실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  
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검사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를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 III. 연구결과

하브루타 토론 활동이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하브루타 토론 활동이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효과

&lt;표 4&gt; 하브루타 토론 활동이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효과

하위요인	집단		<i>M</i>	<i>SD</i>	<i>t</i>	<i>p</i>
지적 열정 및 호기심	사전	실험	3.69	.52	.890	.378
		통제	3.56	.48		
	사후	실험	3.90	.54	2.956*	.005
		통제	3.62	.58		
신중성	사전	실험	3.02	.43	-1.013	.316
		통제	3.14	.42		
	사후	실험	3.40	.35	1.010	.317
		통제	3.18	.47		
자신감	사전	실험	3.78	.60	.670	.506
		통제	3.54	.50		
	사후	실험	4.01	.31	2.190*	.033
		통제	3.73	.58		
체계성	사전	실험	3.28	.45	1.154	.254
		통제	3.09	.70		
	사후	실험	3.89	.67	3.080*	.003
		통제	3.29	.64		
지적 공정성	사전	실험	3.83	.63	-.355	.724
		통제	3.88	.41		
	사후	실험	4.25	.45	2.710*	.009
		통제	4.05	.36		
건전한 회의성	사전	실험	3.29	.48	.488	.628
		통제	3.21	.66		
	사후	실험	3.78	.48	3.795*	.000
		통제	3.31	.67		
객관성	사전	실험	3.05	.46	.501	.618
		통제	3.13	.54		
	사후	실험	4.04	.43	2.441*	.018
		통제	3.35	.50		
비판적 사고 성향 전체	사전	실험	3.42	.31	.614	.542
		통제	3.36	.31		
	사후	실험	3.81	.24	4.300*	.000
		통제	3.48	.28		

\* $p < .05$ 

표 4를 살펴보면, 사전검사 전체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평균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후검사 전체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점수( $M=3.81$ ,  $SD=.24$ )가 통제집단의 평균점수( $M=3.48$ ,  $SD=.28$ )보다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4.300$ ,  $p<.05$ ). 이는 하브루타 토론 활동이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 증진에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지적 열정 및 호기심에서 실험집단

( $M=3.90$ ,  $SD=.54$ )이 통제집단( $M=3.62$ ,  $SD=.58$ )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2.956$ ,  $p<.05$ ). 신중성은 실험집단( $M=3.40$ ,  $SD=.35$ )과 통제집단( $M=3.18$ ,  $SD=.47$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신감은 실험집단( $M=4.01$ ,  $SD=.31$ )이 통제집단( $M=3.73$ ,  $SD=.58$ )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2.190$ ,  $p<.05$ ). 체계성은 실험집단( $M=3.89$ ,  $SD=.67$ )이 통제집단( $M=3.29$ ,  $SD=.64$ )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3.080$ ,  $p<.05$ ). 지적 공정성은 실험집단( $M=4.25$ ,  $SD=.45$ )이 통제집단( $M=4.05$ ,  $SD=.36$ )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2.710$ ,  $p<.05$ ). 건전한 회의성은 실험집단( $M=3.78$ ,  $SD=.48$ )이 통제집단( $M=3.31$ ,  $SD=.67$ )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3.795$ ,  $p<.05$ ). 마지막으로 객관성은 실험집단( $M=4.04$ ,  $SD=.43$ )이 통제집단( $M=3.35$ ,  $SD=.50$ )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2.441$ ,  $p<.05$ ). 이와 같은 결과는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요인 중 신중성을 제외하고 하브루타 토론 활동이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 2. 하브루타 토론 활동이 보육교사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표 5> 하브루타 토론 활동이 보육교사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하위요인	집단		$M$	$SD$	$t$	$p$
문제해결 자신감	사전	실험	4.40	.54	1.068	.291
		통제	4.23	.60		
	사후	실험	4.82	.48	2.522*	.015
		통제	4.44	.60		
접근-회피 양식	사전	실험	4.09	.56	.608	.546
		통제	4.00	.51		
	사후	실험	4.50	.61	2.546*	.014
		통제	4.08	.56		
개인의 통제력	사전	실험	3.72	.87	-.287	.776
		통제	3.79	.85		
	사후	실험	4.25	.78	2.115*	.040
		통제	3.72	.99		
문제해결력 전체	사전	실험	4.73	.57	.646	.521
		통제	4.63	.59		
	사후	실험	5.22	.58	2.893*	.006
		통제	4.74	.61		

\* $p<.05$

표 5를 살펴보면, 사전검사 전체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평균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후검사 전체에서는 실험집단( $M=5.22$ ,  $SD=.58$ )의 평균점수

가 통제집단( $M=4.74$ ,  $SD=.61$ )의 평균점수보다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2.893$ ,  $p<.05$ ). 이는 하브루타 토론 활동이 보육교사의 문제해결력 증진에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문제해결 자신감은 실험집단( $M=4.82$ ,  $SD=.48$ )이 통제집단( $M=4.44$ ,  $SD=.60$ )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2.522$ ,  $p<.05$ ). 접근-회피 양식 점수는 실험집단( $M=4.50$ ,  $SD=.61$ )이 통제집단( $M=4.08$ ,  $SD=.56$ )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2.546$ ,  $p<.05$ ). 마지막으로 개인의 통제력에서도 실험집단( $M=4.25$ ,  $SD=.78$ )은 통제집단( $M=3.72$ ,  $SD=.99$ )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2.115$ ,  $p<.05$ ). 이와 같은 결과는 하브루타 토론 활동이 보육교사의 문제해결력 증진에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 하브루타 토론 활동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하브루타 토론 활동이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효과

하브루타 토론 활동은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브루타 토론 활동이 예비유아특수교사와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향상하는데 효과를 보였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권미은, 2019; 민형덕, 2017; 이정연, 2018).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지적 열정 및 호기심, 자신감, 체계성,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 등 여섯 개 요인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중성에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요인별로 하브루타 토론 활동의 의의를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브루타 토론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지적 열정 및 호기심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보육교사의 지적 열정 및 호기심 향상에 기여한 하브루타 토론 활동의 의의를 살펴보면, 토론 활동에서 사용한 보육정책 이슈 관련 텍스트가 보육교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험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사안의 본질을 규명하고 해결안을 모색하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의 실생활과 연관된 학습, 곧 학습내용의 실제적 성격은 학습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강인애, 주현재, 2009). 다음으로 하브루타 토론 활동에서 두 명의 하브루타 파트너가 텍스트를 읽으며 의문이 드는 점, 더 알고 싶은 점, 논의하고 싶은 점 등을 스스로 질문하게 한 방식이 보육교사의 지적 열정 및 호기심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질문은 하브루타 토론의 주요 특징으로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의사소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기 능하기 때문이다(Wilen, 1991). 이와 동시에 하브루타 상호작용 방법으로서 궁금함 가지기는 보육교사들이 하나의 정답을 요구받지 않고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때문에 지적 열정 및 호기심이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하브루타 토론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하브루타 토론 활동에서 보육교사들은 스스로 발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도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일대일로 상호작용하였기 때문에 정해진 토론시간 내에 한 사람이 발언할 기회도 많았다. 보육교사들은 하브루타 상호작용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 주저하지 않고 명료하게 표현하였으며 서로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고 격려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보육교사들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데 필요한 사고과정과 추론능력의 자신감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하브루타 토론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요인인 체계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보육교사들은 하브루타 토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논박하며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집중하여 결론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 체계성이 증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하브루타 토론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요인인 지적 공정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하브루타 토론 활동은 두 명의 파트너가 함께 공동의 해석을 추구해나가는 상호의존적인 학습방법이기 때문에 경쟁이 아닌 상호협력의 환경을 제공하여 보육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그릇된 가정과 신념을 인정할 수 있는 지적 공정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하브루타 토론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요인인 건전한 회의성과 객관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하브루타 토론 활동을 통해 보육교사의 건전한 회의성과 객관성이 향상된 것은 하브루타 토론의 기본구조와 상호작용의 특성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하브루타 토론 활동에서 두 명의 파트너와 텍스트는 서로의 의견을 지지하거나 도전하는 역할을 한다(Kent, 2008). 텍스트 역시 주장하고 지지하거나 도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두 명의 하브루타가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고, 텍스트 안에서 해석의 근거를 찾거나 텍스트가 말하는 근거에 맞지 않아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Holzer & Kent, 2013). 이러한 원리에 따라 보육교사들은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고, 추론을 확인하기 위해 텍스트를



다시 살펴며, 상대방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주장을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면서도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에 대해서는 도전하였던 토론의 과정을 통해 건전한 회의성과 객관성이 증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요인 중 ‘신중성’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하브루타 토론 수업을 실시한 권미은(2019), 민형덕(2017)의 연구에서도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요인 중 신중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하브루타 토론을 초등학교 사회과 수업에 적용한 김정수(2018)의 연구에서도 비판적 사고기능의 하위요인 중 ‘다양한 정보원의 신뢰성을 비교·분석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선택하기’라는 신중성과 관련한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요인으로서 평가했던 신중성이 인간의 고유한 성격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격유형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검사도구로서 DISC검사의 C형은 신중형을, MBTI검사의 I형은 신중한 성격을 내포하는 내향형을 평가한다. 따라서 신중성은 개인마다 타고난 기질과 환경적 요인 간 오랜 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성격요인으로서 단기간의 실험을 통해 변화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 하브루타 토론 활동이 보육교사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하브루타 토론 활동은 보육교사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브루타 토론 활동이 예비유아교사들의 문제해결력을 향상하는데 효과를 보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현, 민형덕, 송준석, 2017; 권미은, 2019; 민형덕, 2017; 정선영, 최현정, 2015).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별로 하브루타 토론 활동의 의의를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브루타 토론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해결 자신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하브루타 토론 활동에서 보육교사들은 텍스트를 읽고 개인마다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여 질문화한 후, 질문의 우선순위에 따라 여러 해결안을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나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처럼 문제상황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발견하여 대처하는 경험은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이영선, 박성연, 2009; 황설영, 2005). 따라서 하브루타 토론 활동은 각 회기마다 한 가지 주제 안에서 여러 문제 상황을 발굴하고 해결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여 보육교사들의 문제해결 자신감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하브루타 토론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접근-회피 양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하브루타 토론 활동은 텍스트로부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 성향

을 향상하는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문제해결에 대한 지식과 기술 습득은 성취감과 자신감 향상에 기여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성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D'Zurilla & Nezu, 2008). 그리고 하브루타 상호작용 방법은 토론과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상황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하브루타 토론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개인의 통제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하브루타 토론 활동에서 보육교사들은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기본자세로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훈련을 통해 개인의 통제력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하브루타 토론 활동을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경청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고현, 민형덕, 송준석(2017)의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계점 및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확률적 표본추출이 아닌 자연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실험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하브루타 토론 활동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무작위로 추출된 보육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하브루타 토론 활동은 수업의 일부 시간에 한정되어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의 토론을 2~3차시에 걸쳐 진행해야 했다. 이러한 방식은 토론을 멈춘 후 논의한 내용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고의 흐름이 끊겨서 토론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토론 시간을 확보하고, 질적 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력이 향상되어가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브루타 토론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서는 특정 주제에 대해 실제로 사고하고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예비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하브루타 토론 활동을 경험한다면 교직입문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며, 교육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문숙, 박수홍, 김두규 (2012).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블렌디드 PBL 프로그램 개발. *교사교육연구*, 51(3), 333-352. <http://dx.doi.org/10.15812/ter.51.3.201212.333>
- 강인애, 주현재 (2009). '학습자 중심 교육'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 현직교사들의 이해와 실천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2), 1-34.
- 고현, 민형덕, 송준석 (2017). 질문 중심의 하브루타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3), 253-278.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13.253>
- 곽윤숙 (2013). 보육교사의 직업적 성격에 따른 전문성 논의. *직업교육연구*, 32(5), 95-114.
- 권미은 (2019). 하브루타 러닝이 예비유아특수교사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협력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8(4), 203-222.
- 김명숙 (2002). 공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 교육의 방향과 쟁점. *철학연구*, 58, 107-144.
- 김명숙, 박정, 김광수 (2001). 사고력검사개발연구(1): 비판적사고력 검사 예비문항 개발편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보경 (2016). 유대인 하브루타 학습의 이해와 정착을 위한 과제. *신앙과 학문*, 21(1), 81-115.
- 김사녀 (2012). 유아교사의 의사소통능력과 교수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설, 황미영 (2011). 보육교직원의 효율적 보수교육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연구보고 2011-04). 육아정책연구소. [https://www.nkis.re.kr:4445/subject\\_view1.do?otpId=KICE00014040&otpSeq=0&popup=P](https://www.nkis.re.kr:4445/subject_view1.do?otpId=KICE00014040&otpSeq=0&popup=P)에서 2020년 2월 29일 인출.
- 김정수 (2018). 하브루타 토론을 활용한 사회과 수업이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미 (2017). 지능정보사회에서 유아교사직에 대한 고찰. *한국교원교육학회*, 34(2), 85-109. <http://dx.doi.org/10.24211/tjkte.2017.34.2.85>
- 남미경, 윤갑정 (2016). 문제중심학습(PBL)이 예비보육교사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243-270. <http://dx.doi.org/10.22251/jlcci.2016.16.9.243>
- 노수남 (2009). 유아교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교사 효능감이 유아의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

- 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3(3), 289-311.
- 민정혜 (2016. 09. 25). 어린이집서 사망한 아이 5년간 55명.. 사인 1위는 “원인미상”. 코리안뉴스, <http://news1.kr/articles/?2783260>에서 2016년 9월 25일 인출.
- 민형덕 (2017). 학습자중심 질문수업이 비판적 사고성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및 협력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중길 (2007). 사고양식으로 예측한 무용과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한국체육학회지, 46(6), 407-419.
- 박지희, 조형숙, 염지숙 (2014). 유치원 교사 핵심역량에 기초한 현직교사교육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34(5), 207-228. <http://dx.doi.org/10.18023/kjece.2014.34.5.010>
- 백운찬 (2016. 08. 29). 누구를 위한 맞춤형 보육인가?.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405>에서 2016년 8월 29일 인출.
- 서경혜 (2005). 반성과 실천: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소고. 교육과정연구, 23(2), 285-310.
- 신민재 (2016. 09. 16). 당신 자녀는 안전합니까...어린이집 CCTV 의무화 1년.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653137>에서 2016년 9월 16일 인출.
- 양미경 (2002). 학생의 질문 행동 및 내용의 특성과 그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 분석. 교육학연구, 40(1), 99-128.
- 양현선 (2006).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활용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채선 (2011). 유아교육, 보육 정책 변화에 따른 유아교사 전문성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5(5), 249-277.
- 우경애, 김세곤 (2014). PBL적용수업에서 예비유아교사의 SNS활용이 플로우(FLOW)와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6), 167-187.
- 윤진 (2004).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 개발: 간호학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희 (2012). 유치원 교사의 발달단계에 따른 원장과의 갈등수준과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 박성연 (2009). 남녀 청소년의 부적응적, 적응적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관계: 문제해결 자신감의 중재적 역할. 인간발달연구, 16(3), 113-129.
- 이은영 (2016). 어린이집 딜레마상황에 대한 교사 간 짝토론 활동이 보육교사의 비판적 사

- 고성향에 미치는 효과.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 김병찬 (2010). 중학교 1학년 동학년 교사의 교직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경기도 보람중학교 사례. 교육문제연구, 36, 81-110.
- 이정연 (2018). 하브루타(Havruta)를 활용한 토론 수업의 효과 연구. 언어과학연구, 86, 279-301. <http://dx.doi.org/10.21296/jls.2018.09.86.279>
- 이희경 (2008). 낙관성 비관성 문제해결평가 및 정적/ 부정적 감정 간의 관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03-623. <http://dx.doi.org/10.17315/kjhp.2008.13.3.004>
- 이희경, 김성수 (2007). 유아교사 역할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신념 분석: Q-방법론적 접근. 영유아교육연구, 10, 169-186. <http://dx.doi.org/10.15812/ter.51.3.201212.333>
- 임현우, 이동귀, 박현주 (2004). 한국판 문제해결질문지. 한국상담심리학회 Dr. Heppner 초청 특별 심포지움: 상담에서의 문제 해결 발표논문. 12월 18일. 서울: 서강대학교 이나시오관. 미간행.
- 정선영, 최현정 (2015). 이스라엘의 하브루타 방식에 기초한 온라인 토론 활동이 토론 활동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27(1), 39-66. <http://dx.doi.org/10.17927/tkjems.2015.27.1.39>
- 정옥경 (2016).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성경적 덕성교육 모형 개발. 충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홍석 (2010). 전문계 고등학생 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스트레스, 문제해결력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민경 (2009). 예비유아교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해 사고양식이 미치는 영향 연구, 유아교육학회지, 13(3), 165-188.
- 한진경 (2016. 08. 31). 세부내용 없는 '유보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사 혼란.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231080>에서 2016년 8월 31일 인출.
- 허수윤, 서현아 (2016). 유아교사의 문제해결력 수준에 따른 교사역할수행과 교사 효능감 경향 탐색. 유아교육연구, 36(3), 5-21. <http://dx.doi.org/10.18023/kjece.2016.36.3.001>
- 헤츠키 아리엘리, 김진자 (2014). 헤츠키 아리엘리의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 IMD Center.
- 홍지명 (2018). 문제중심학습(PBL)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9(6), 1-12. <http://dx.doi.org/10.22143/HSS21.9.6.1>
- 황설희 (2005). 문제해결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애, 김성재 (2018). 협력기반 봉사학습이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7), 321-330.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07.44>
- Bergom, I., Wright, M. C., Brown, M. K. & Brooks, M. (2011). Promoting college student development through collaborative learning: A case study of hevruta. *About Campus*, 15(6), 19-25. <https://doi.org/10.1002/abc.20044>
- Blumenfeld, B. P. (2011). Can Havruta Style Learning Be a Best Practice in Law School?. *Willamett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Dispute Resolution*, 18(1), 109-142.
- D'Zurilla, T. J. & Nezu, A. M. (2008). 문제해결요법: 임상적 개입에의 적극적 접근 [*Problemsolving therapy: A positive approach to clinical intervention*]. (박권생과 최이순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6에 출판)
- D'Zurilla, T. J. & Nezu, A. M.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2), 156-163. <http://dx.doi.org/10.1037/1040-3590.2.2.156>
- Ennis, R. H. (1985). A logical basis for measuring critical thinking skills. *Educational Leadership*, 43(2), 44-48.
- Ennis, R. H. (1996). *Critical thinking*.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Facione, P. A. (1990). *Critical thinking: A statement of expert consensus for purposes of educational assessment and instruction*. Millbrae, CA, The California Academic Press.
- Heppner, P. P., & Peterson, C. H.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 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1), 66-75. <http://dx.doi.org/10.1037/0022-0167.29.1.66>
- Holzer, E. & Kent, O. (2013). *A Philosophy of Havruta-Understanding and teaching the art of text study in pairs*. Boston, MA: Academic Studies Press.
- Kent, O. (2006). Interactive Text Study: A Case of Hevruta Learning. *Journal of Jewish Education*, 72(3), 205-233. <http://dx.doi.org/10.1080/15244110600990155>
- Kent, O. (2008). *Interactive Text Study and the Co-Construction of Meaning: Havruta in the DeLeT Beit Midrash*. Ph. D.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 Wilen, W. W. (1991). *Questioning skills, for teachers*(4th ed.). Washington, DC: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ABSTRACT

The effect of Havruta discussion activitie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child care teachers

Won Ae-Shin  
Ok Kyung-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Havruta discussion activity affects improving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the problem-solving abilities of child care teachers. To this end, 51 child care teacher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ere divided into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Havruta discussions once a week for 10 weeks. As a result of compar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problem-solving ability tests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problem-solving ability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 suggested that the Havruta discussion activity has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child care teachers and that it is valuable in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child care teachers.